

小康期를 맞는 精油業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精油業界는 다시 한번 希望을 가져본다. 第2次 石油波動의 험한 물결에 휩싸여 混迷를 거듭하던 지난 해를 그럭저럭 넘기면서, 올해에는 우리 業界에도 희미해도 좋으니 光明이 찾아들지 않을까 期待도 해본다. 그러나 이런 希望과 期待와는 距離가 먼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石油業界를 감싸려는 조짐이 엿보이는 것도 事實인 듯 싶다. 今年도 喜悲가 交叉하는 해가 될 것인지…….

于先, 希望의인 見地에서 今年를 내다보면, 多少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好材가 눈에 띄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對外的으로 볼때, 原油供給의 價格面이나 物量面에서 相當히 安定될 것 같고, 對內的으로는 우리나라 經濟가 物價安定時 全般的인 安定基調 밑에서 景氣回復과 함께 油類消費도 多少나마 伸張될 것으로 보여, 작년과 昨年에 겪었던 것과 같은 暴騰하는 油價에 消費者는 消費者대로 燃料費加重에 시달리고, 精油業者는 他們대로 累增되는 赤字에 허덕이는 그런 狀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今年에는 우리 業界에 一種의 小康狀態가 찾아올 듯 하다.

그러나 이 小康狀態는 여러가지 前提, 例컨대 OPEC의 原油價格政策과 國際政治經濟狀況에 急變이 없을 것이라는 前提, 現在 우리 經濟가 指向하는 安定基調와 漸進的인 景氣回復이 維持된다는 前提 等等이 成立되어야만 實現될 수 있는 이른바 準不安定狀態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希望이며, 狀況變動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破壞될지도 모르는, 이 小康期를 安然히 보낼 것이 아니라 이를 所重히 여겨 앞날을 위한 準備期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業界는 安定期가 될 수도 있는 今年이야

말로 지난 두 차례의 石油波動과 싸우는 동안 입은 많은 傷處를 씻고서, 우리 앞날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버릴수 있는 여러가지 難關을 克服하는데 必要的인 體質改善과 體力強化를 圖謀해야 한다. 業界全體의 生存과 發展을 위하여 小義를 버리고 大義를 살리는 精神下에 大同團結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있는 重要的인 課題即, 政對가 그 使用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는 各種 代替에 너지와의 相關關係定立, 低硫黃油의 製造供給體制確立, 製品의 輕質化, 油種間 價格의 合理的인 調整, 原油 및 製品의 備蓄, 그리고 對內外 原油開發에의 參與等 課題의 解決을 통하여 窮極의으로는 安定的이고 低廉한 石油製品을 需用家에게 供給할 수 있는 體質과 體力를 우리는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萬一 이 점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今年이 우리에게 달콤한 小康期가 되더라도 우리앞에 놓여있는 課題, 例컨대 앞서 말한 代替에 너지問題, 低公害油供給問題, 製品間價格差問題 등은 풀기 어려운 難題, 나아가서는 抗拒하기 어려운 挑戰으로 變하여 급기야에는 石油製品需要伸張不振이란 結果를 가져와, 좁아져가는 油類市場의 相互爭奪을 위한 自中之亂에 빠지고 급기야에는 需用家の 外面을 當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거들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絶對로 悲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最強의 産業役軍을 自處하는 우리 精油業界는 아직도 크나큰 底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82年을 安定을 되찾는 해로 슬기롭게 넘기며, 더욱 길고 밝은 앞날을 期約할 것으로 믿는다. *

〈威秉昭·大韓石油協會 副會長〉